

반도체 흔들리자 증시 출렁... 실적빙하기 우려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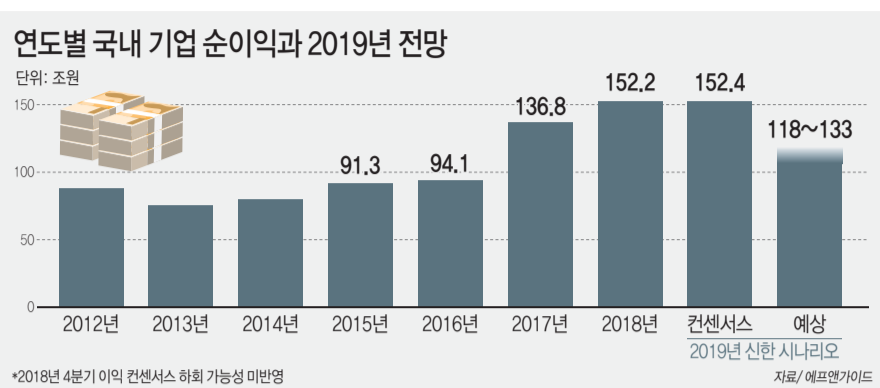
반도체 27개월 만에 역성장 기록
IT 등 모든 지표 실적감소 도미노

국내 코스피(KOSPI)지수 시가총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위태롭다. 글로벌 경기 침체 분위기도 더해지며 국내 증시가 힘든 2019년을 보낼 전망이다.

12월 반도체 수출액은 88억6000만달러로 2017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7개월 만에 역성장이다.

3일 기준 한 때 5만원을 웃돌았던 삼성전자는 3만원대로 내려앉았고, 10만원을 바라보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6만원이 무너진 상태다. 두 종목의 시총 비중은 2016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고 있다.

비단 삼성전자 등 정보기술(IT) 업종 둔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업종 전반위적으로 실적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메리츠증권증권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간 올해(2019년) 실적 전망은 5.7%나 낮아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간 최대 감소폭이다. 11월 초 160조원 수준이었던 2019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은 2개월만에 145조원으로 급감했다.

1월 초 삼성전자의 2018년 4분기 실적 발표로 실적시즌이 시작되지만 전망은 어둡다. 통상 4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 등의 반영으로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과거(2010년~2017년) 평균수준인 20%포인트 괴리율의 어닝쇼크(실적충격)가 발생할 경우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추가적인 20~30%의 실적 감익을 상정해야 한다면 사실상 글로벌 ‘경기 침체’에 준하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는 국내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배경에는 실적 변수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올해와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가팔라지고 있고 2개월 간 실적 전망 하향 조정폭은 2% 수준이다.

미국의 성장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다. 2018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 500)의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은 24%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10% 성장 전망치에서 낮아진 것으로 한자릿수의 실적 성장이 현실화된 것이다.

중국의 경제도 위태롭다. 지난 3일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기준선(50)을 밑돌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 PMI가 50 이하로 추락한 것은 1년 반 만이다.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졌다. 아울러 중국 무

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역시 뒤처릴 것일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의 환경 속에서 국내 증권

전문가들은 올해 코스피 상단이 최대 2550선이 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최대값(2607.10)보다 낮은 전망이다.

다만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 진입한 상태로 올해 증시는 전년보다는 나올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최근 250거래일 중 상승일 수 비율은 현재 50% 내외까지 하락했고, 한때 50%를 하회했다”며 “과거 45~50%에서 바닥 확인 후 반등했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 올해 투자 심리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수는 미국 채무한도 협상과 미·중 협상,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협상 등 정치적 이벤트,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이익 저점 통과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번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다섯번째), 최중구 금융위원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영지기자 son@

24시를 향해 달리는 韓경제 ‘운명의 날 시계’ 투자위축 發 경제한파... “규제 열어야 봄별”

일자리·소득감소 등 악순환 우려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 완화해야”

“현재 제일 부진한 것이 투자와 고용이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살려야 한다. 민간기업들, 특히 대기업이 계획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조기 착공하도록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KBS 9시뉴스 인터뷰)

“한국은 임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는 낮추는데 우리는 올리면서 경쟁력 대비 높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투자할 곳도 없고 투자해도 이익이 안 나는데 왜 투자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지난해 12월 20일 제 241회 경총포럼)

핵과화학단체가 핵 전쟁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설정한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현재 23시57분30초를 가리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 이후 30초가 앞당겨졌다.

한국경제의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어디쯤 가리킬까. 정확한 시간은 속단하기 힘들지만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가리키는 24시를 향해 달려 가고 있는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

벼랑끝에 몰려 있는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빠져릴 재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금리인상, 유가하락 등이 변수다. 안으로는 기업 투자가 최대 복병이란 데 이견은 없다. 전문가들은 쓰러져가는 ‘소(한국경제)’에게 먹일 ‘낙지(기업투자)’를 구할 해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위축 발 ‘경제겨울’ 올까
첫손에 꼽은 건 투자위축이다. 일류종말로 내 물 해무기 만큼 파괴력은 강력하다는 평가다.

투자 감소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한국경제의 성장률 복병이다. 씩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제시하면서도 “대외 리스크가 불거져 교역량이 꺾일 경우 2.6%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LG경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

| 구분 | 규모 | 내용 |
|-----|-----------|---|
| 현대차 | 5년간 23조원 | - 로봇, AI, 스마트카 등 5대 신산업 육성 |
| SK | 3년간 80조원 | - 반도체·소재, 에너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중심으로 투자 |
| 신세계 | 3년간 9조원 | - 신사업 발굴, AI소싱 및 스마트카드 등 디지털 혁신, 최첨단 온라인센터 구축 등에 투자 |
| 한화 | 5년간 22조원 | - 태양광·석유화학, 방산 등 신사업에 투자 |
| 삼성 | 3년간 180조원 | - AI, 5G, 바이오 등 미래성장 사업에 25조원 투자 |
| 포스코 | 5년간 45조원 | - 철강 고도화, 신성장사업 발굴, 친환경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 등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
| GS | 5년간 20조원 | - 에너지·유통·건설 3대 사업 부문별 투자 |
| 롯데 | 5년간 20조원 | - 4개 사업(화학·건설, 유통, 관광·서비스, 식품)투자 |

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2.5%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대 만큼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문제는 투자위축에 따른 ‘경제겨울’이 더 걱정이다. ‘투자 저하-생산 감소-일자리 감소-소득 감소’라는 국민경제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 특히 기업투자 경영환경이 ‘사면초가’ 위기에 놓이면서 취업자 가운데 20~30대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고용환경 악화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업들은 현금을 쥔 채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원에 따르면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2000년 127조원에서 2016년 575조원으로 4.5배 늘었다.

◆환경 개선과 규제 개혁으로 ‘투자’ 유도
산업연구원은 국내 설비투자의 방향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대외 불확실성 해소 여부, 제조업 내 공급 과잉 완화 여부, 해외투자 둔화 및 외국인투자 유입의 지속 여부 등을 꼽고 있다.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투자에 나설까.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 내 공급 과잉을 완화하는 동시에 민간 투자 계획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구조적으로 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혁신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지난 12월 경총포럼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은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는 규제가 여전히 너무 많다. 국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업종이나 산업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제적 기준에 비슷한 규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찬가지로 노동유연성도 최소한 다른 선진국이나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해달라는 게 경제계의 의견이다. 어느 나라든 기업이 정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업들이 잘 돼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도 기업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도 투자활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할 정책이 무엇인지는 질문에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25.2%)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20.5%), 노동유연성 확대(16.7%)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매출 1000대 기업 조사에서도 비슷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규제 완화(30.2%)에 이어 노동유연성 확대(26.1%)를 꼽았다.

정부 경제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KDI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 호황에 의존한 ‘착시 현상’을 우려하면서 정부 정책이 혁신성장 등 공급 측면의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당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동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민호 기자 kmh@

최종구 “유연한 규제환경 만들 것”

(금융위원장)

범금융 신년 인사회

자본시장 혁신과제 우선 해결 언급

이주열 “기업투자 활력 위해 지원 첨단기술산업 육성 적극 뒷받침”

“담보가 부족해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일은 최소화 하고 금융업이 독과점적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철학은 금융시장의 왜곡과 불안정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올해도 많은 정책들이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가능한 효율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금융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고 긴급 유동성 확대와 보증 확대 등 기존 정책수단을 심분 활용해 전통 주력사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자금을 조달 받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 위원장은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자금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경제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혁신기업에는 창업부터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인사회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해 겪었던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생산적인 부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기업의 투자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미래 경제를 선도할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